



산재취약계층 사고예방

지하철 기관사 직무스트레스 예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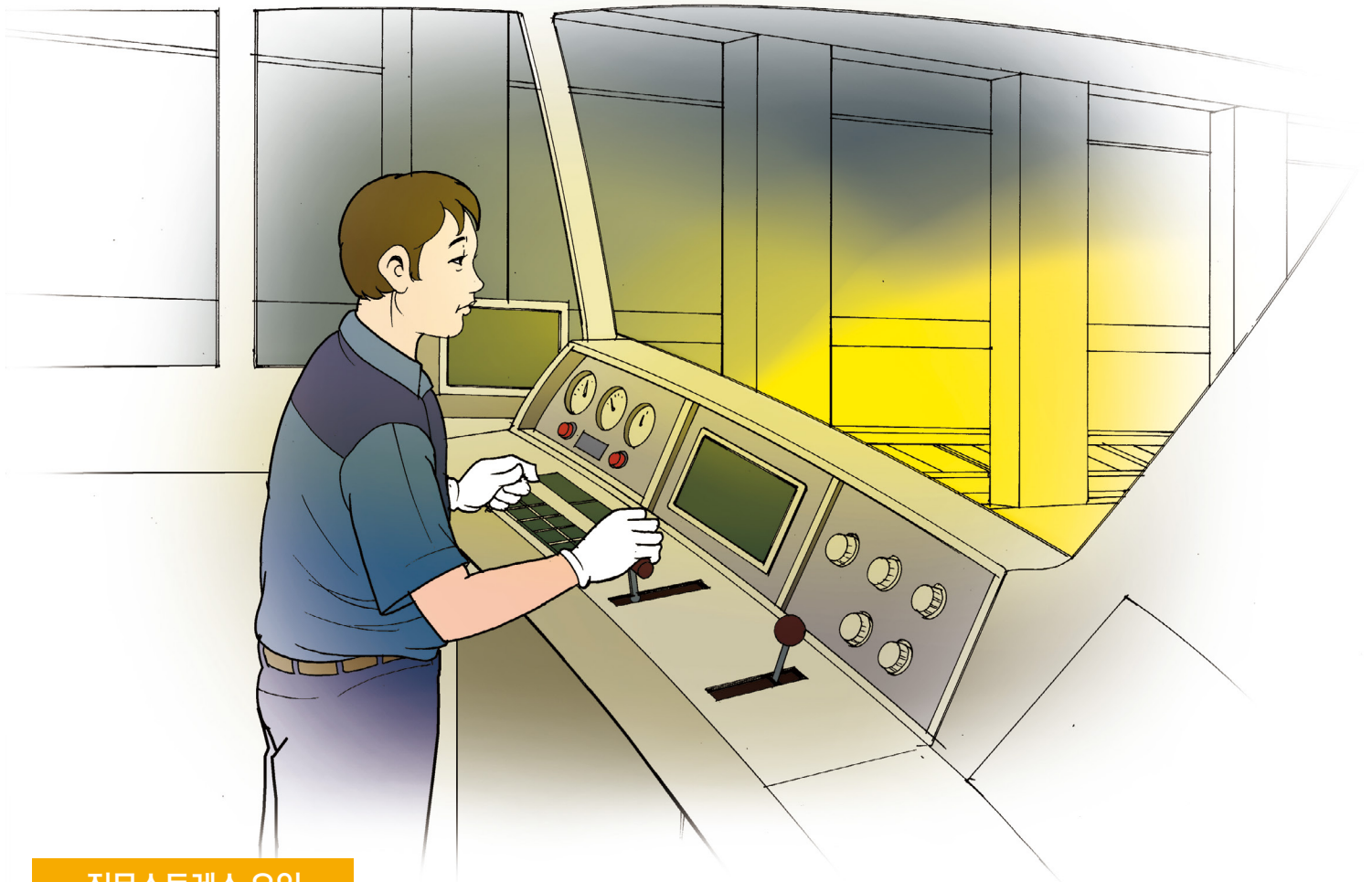


2016-교육미디어-1001



재해사례

지하철 기관사는 근무환경 및 직무의 특성상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노출 우려



직무스트레스 요인

- 근무환경과 사고위험 : 장시간 터널 속을 운행하는 근무 특성상 햇빛이 없고, 바깥공기를 쐬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답답함 호소, 열차 간의 충돌, 탈선 및 인사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 상존
- 직무요구 : 안전수송을 위해 빠른 속도로 운행하며 출발과 속도제어 및 제동취급에 의한 정차를 반복함으로써 고도의 집중력 요구, 많은 승객의 탑승으로 인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승객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긴장의 연속,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단독근무로 인한 압박감 등으로 정신적, 육체적 피로감 누적
- 직무자율 : 운행표에 의한 운전, 운전 자동화 등으로 자율성 결여
- 조직체계 : 1인 기관사 체제로 편성되어 업무부담 가중, 근무의 규칙성 부족

지하철 기관사 직무스트레스 관리



근무환경과 휴식공간

- 좁은 기관실에서 홀로 장시간 지하철 운행시 발생하는 졸음과 소변 등의 생리적 문제 해결 노력
- 지하철 운행 중간의 휴식시간에 휴식과 간단한 체조 등 실시



교번(교대) 근무관리

- 순환빈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근무 편성
- 출근하여 승무를 시작할 장소와 승무를 마치고 퇴근할 장소를 승무사업소 인근지점이 되도록 승무행로를 정하여 출근과 퇴근에 편의 제공
- 전반사업 승무 후 하차한 지점과 중반사업 또는 후반사업 승무시 승차할 지점간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이동거리 최소화



민원과 사고처리 지원체계 마련

- 승객이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대에는 추가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과 사고위험을 줄이도록 노력
- 불만을 제기한 승객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다른 사무원이나 관리자가 직접 대응하게 함으로써 불쾌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방
-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처리과정에서 근로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



사업장 점검포인트



참고 법령 및 작성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(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
- KOSHA Guide H-88-2012 「지하철 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」

※ 해당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기술지침(KOSHA GUIDE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